

광주시 도심 최고 주행속도 50km로 낮춘다

교통사고 줄이고 시민 안전·생명 보호 최우선 20억 들여 간선도로 326km 제한 속도 하향조정

광주시가 주요 도심 도로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심 속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예산 20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 326km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4월 도시부 도로의 통행속도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안전속도 5030' 교

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을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를 도입해 제1순환도로 내부 59.2km에 대해 속도 하향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주요 간선도로 326km에 대한 설계작

수 사업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km/h로 낮춘데 이어, 하반기부터 간선도로의 제한속도 변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바뀐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영국, 스웨덴 등 교통선진국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심내에서 교통사고 중 76.4%, 보행사고 중 92%가 발생하고 있

는 상황이다.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한 부산 영도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 24.22%, 보행사고 사망자 37.5% 등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전국 68개 시범지역에서도 전체 사망자 수가 63.6%나 감소했다. 속도 감소에 따른 교통정체도 평균 2분, 택시요금도 평균 106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보좌관 특정인 선임하려다 원점 재검토 문화재단 대표 선임 재공모...도시공사 임원 모집 관심

민선 7기들어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 때마다 뒷말이 무성하다. 패턴도 공모 이전부터 특정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자질 논란을 빚는 식이다. 끝까지 버티어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도 낙마한 인사도 심심찮게 나온다. 인사 때마다 사전 내정설이 흘러나오다 보니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은 아예 원서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광주시의 산하 기관장 선임 인사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시는 최근에도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수석)보좌관을 5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특정인을 선임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3급인 대외협력수석보좌관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면서 "좋은 인물이 있으면 추천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날 원점 재검토 발언은 그동안 대외협력수석보좌관으로 유력시됐던 A씨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진행된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전 내정설 등이 불거지는 바람에 입찰에 올랐다. 이날 면접절차를 밟은 광주문화재단 대표 선임도 각종 루머가 돌면서 지역내는 물론 지역 밖에서도 다수의 문화계 인사들이 원서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면접위원들은 이날 '적격자 없

음' 판단을 내렸고,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정성용 전 국회의원은 민선 7기 들어 광주시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 등을 빚어 낙마한 뒤 인사청문회가 없는 남도학속원장으로 임명돼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이 이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력 때문이다. 이처럼 산하기관 대표 선임 때마다 내정설 등이 흘러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인사절과도 무관치 않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 22곳 중 18곳의 대표가 교체됐는데, 절반 이상이 선거캠프와 시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 광주시도시공사 임원공개모집(경영이사 1명, 사업이사 1명)을 놓고도 각종 말이 떠돈다. 이러한 인사 분위기라면 능력을 갖춘 인물의 지원 접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광주시는 사전 내정설 등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산하기관 대표 선임 때만 되면 머리가 무겁다.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사전 내정설 등이 떠돌면서 많은 인재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화재단 대표 등 산하기관 대표 선임과 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도심 흉물' 빈집 정비 본격화

공영주차장·임대주택 활용

광주시는 "범죄 발생 우려와 주거 환경 악화 등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14억원을 투입, 32개의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지역내 빈집은 총 2281채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동구 404채, 서구 298채, 남구 614채, 북구 393채, 광산구 572채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구와 올해 9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된 빈집은 공영주차장, 마을커뮤니티센터,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침수피해 현장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이 침수피해를 입은 신안동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이 침수피해를 입은 신안동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2020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나선다

5년내 취득 농지 1만1700ha 대상

광주시는 10일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다. 올해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7월1일~2020년6월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 총 1만1700ha다. 광주시는 국비로 농지이용관리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치구에 인력을 지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되며, 농지원부 중점 정비 대상인 고령자(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에 대해서는 불법임대차정합이 있는지 등의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유무' 부과 등 행정조직을 실시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209·210번 확진자 비협조에 감염 경로 '깜깜이'

증상 후 커피숍·마트 등 이용 추가 감염 우려

광주시가 광주 209번과 210번 코로나19 확진자의 비협조로 감염경로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 사이인 209번(40대 여성)과 210번(10대 여성)의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확진 이

후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휴대전화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 동선 CCTV 등을 확인한 뒤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이 끼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내역 확인 등이 지연되는 등 동선파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모녀는 광주 서구 화정2동 한 아파

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9번은 5일 처음 증상이 나오고 7일 선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했다. 증상 발현 후 검사를 받을 때까지 주거지 인근 커피숍, 마트, 식당, 약국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210번은 무증상이었으며 검사 이전인 6~7일에는 자택에 머물렀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조하지 않으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이야기했는데도 협조가 안 되고 있다"며 "감염 경로가 아직 불확실한데, 신속하게 찾아내겠다"

고 말했다. 이들 모녀의 접촉자 311명을 검사해 276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56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하며,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전날 30명대를 기록했던 지역발생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어든 영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 늘어 누적 1만4626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명으로, 해외유입 11명보다 많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